

## 수출업체 · 농가 대상 「농약안전사용 교육」 실시

### 농림부, 일본 농식품 잔류농약관리방식 변경시행 따른 대비

**농**림부는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대일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통관시 잔류농약이 1회 초과검출하면 5% 샘플검사에서 50%샘플검사, 2회 초과 검출되면 전수검사 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일 수출에 있어 농약 안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향후에도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수출컨설팅에서 농약안전사용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대일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7월부터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일본측의 Positive List 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다. 그동안 파프리카, 토마토 등 주요 대일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중인 농약성분 14종을 반영시켰으며 수출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11월, 농식품의 잔류농약 관리제도를 네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변경,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입법예고 한바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농식품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약 등이 함유된 농식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층 강화된 농약관리 시스템이다.

#### ● Positive List 제도란?

- 농식품에 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리스트를 설정하고 허용기준을 초과 하는 농식품의 유통을 금지
  -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일률기준치 0.01ppm 적용

#### ● Negative List 제도란?

- 잔류농약 허용기준 리스트를 설정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유통을 규제하지 않음



## 다우 아그로, 한국작물보호협 준회원 가입



**다우** 아그로 사이언스 인터내셔널(주)

(대표 안토니 루이스 크램)가 지난 4월 20일 한국작물보호

협회 준회원으로 가입했

다. 이로써 농약수입업을 영위하

고 있는 다우 아그로 사이언스 인터내셔널(주)

는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준회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여섯 번째 회원이

되었다. 이번에 준회원으로 가입한 다우 아그로 사이언스 인터내셔널(주)의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향타워 21층이며 전화번호는 02-551-1109번, 팩스번호는 02-556-7090번이다.

한편 올해 명칭을 변경한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지난해 11월 작물보호산업 관련 기업이 작물보호제로서의 올바른 이미지 제고와 농약안전성 홍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회원 제도를 도입키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바 있다.

## 세계 쌀 재고율 32년만에 '최저'

국제 쌀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세계 쌀 기말 재고율이 1974년 이후 최저인 16%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고, 국제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산과의 가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쌀 수급상황 등에 따른 것으로, 식량 안보 태세의 중장기적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가 10일 발표한 세계곡물 수급전망을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곡물연도(2005년 8월~2006년 7월)의 세계 쌀 기말 재고율은 16.1%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974년 곡물연도 후 32년 만에 최저치다. 이처럼 쌀 재고율이 감소한 것은 인구 대국인 중국의 작황 등 세계 쌀 수급상황에 따른 영향이 크다.

중국의 올해 쌀 생산량은 1억2,740만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지만, 소비량은 이보다 많은 1억3,52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 곡물연도 세계 쌀 소비량은 4억1,818만으로, 전년 4억1,416만보다 402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기말 재고량은 전년보다 9.7%포인트 줄어든 6,740만으로 예상된다.

세계 쌀 재고율 급락이 우리나라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기상재해 등으로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식량안보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농약과학회, 신임회장에 류갑희 부장 선출 4월 6~7일, 定總 및 춘계학술회의서

한국농약과학회 2006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 발표회가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 경농, 논잡초약 「나지마 액상수화제」 출시

**경농** (대표 이병만)이 이양 (파종)전에 원액을 살포하는 논잡초약 「나지마 액상수화제」를 개발, 본격 농가 공급에 나선다.

이번에 출시되는 「나지마 액상수화제」는 벼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높아 물 관리 등에 따른 약해 염려가 없어 담수직파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담수직파벼의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기 논잡초약이 없어 잡초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지마 액상수화제」 공급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피, 일년생 광엽잡초 뿐만 아니라 저항



성 초종인 물달개비, 알방동사니, 올챙이고랭이 등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초제이며 또한 사마귀풀, 새섬매자기를 방제하고 올방개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논잡초 방제에 매우 효과적이다.

사용법은 썰레질 후 5일 이내에 어느 때라도 살포가 가능하며 논물을 6~7cm이상 가둔 상태에서 논 10a(300평)당 400ml원액을 살포

하면 된다. 이양하기 전이나 파종 후 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약효를 발휘하기 위하여 최소한 약제 처리 후 3일 이상 지나서 배수하는 것이 좋다.



부산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약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해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첫날인 6일에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류갑희 부장(원내 사진)

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 이날 학회장으로 취임한 류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범 10주년에 즈음하여 중책을 맡게 되었다”면서 “국제 심포지엄을 겸해 치러질 1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학회의 학술진흥재단(KRF) 등재를 위해 진력할 생각”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히고는 관례에 따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및 올바른 이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 농과원, 「농약에 의한 농작물 피해원인과 대책」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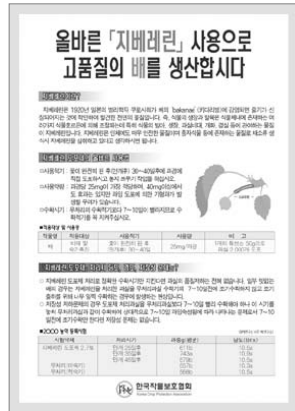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은 최근 농약사용



## 한국작물보호협, 「올바른 지베레린 사용법」 리후렛 배부

### 한국 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최근

천연 식물호르몬으로 친환경 농업에 적합하며 농업의 부가 가치를 높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제품으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베레린 도포제 사용에 대한 홍보 리후렛 「올바른 지베레린 사용으로 고품질의 배를 생산합니다(국배판)」 6천매를 제작, 관련기관 및 과수농협, 회원사 등에 각각 배부했다.



지베레린 도포제 사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고품질 배를 생산함으로써 이 약제를 사용하는 선의의 농업인을 보호함은 물론 지베레린 사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 배부한 이번 리후렛에는 지베레린의 정의 및 올바른 사용법, 처리시 당도, 경도, 저장성의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농약으로 인한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농약에 의한 농작물 피해원인과 대책」이란 책자 1,500부를 발간,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

및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농업 현장에서의 농약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원인 구명 및 민원 처리결과를 총 정리하여 농업현장 지도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센터 등 농업 일선기관에 배부했다.

최근 8여년간 농약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피해사례를 일선기관에 알려 줌으로써 피해를 사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약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도 기재했다. 또한 농약 살포시 농업인의 안전성 도모

### 인사

- **바이엘** <승진> △기획관리본부장 이지숙 상무 △사업개발본부장 유병두 상무 △영업관리팀장 구선모 상무 △공장장 김용철 이사 △사업개발본부 마케팅팀장 이정득 부장 △강원지점 장청희 부장 △개발팀 이방식 부장 △환경안전팀 오종영 부장 △재고관리팀 정태희 부장